

대우일렉 매각 이번엔 성공하나

동부그룹 가세, 5개사에 입찰 안내서

내달 13일께 본입찰 우선협상자 선정

광주에 공장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의 인수전이 본격화됐다.
16일 캠프(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우일렉 매각 주간사이 우리은행은 이날 대우일렉 인수 의향을 보인 5개사에 입찰 안내서를 보냈다.
5개사는 동부그룹이 참여한 케이터 인베스트먼트와 삼라미디어스(SM) 그룹, 독일 가전업체 보쉬지멘스, 스웨덴 가전업체 일렉트로룩스, 미국 사모펀드 원록 등이다.
캠프는 이들 5개사를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께 매각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10월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매각을 마무리지를 계획이다.
대우일렉은 그동안 다섯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부그룹 등 5개사가 뛰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매각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수전이 뜨거워진 이유는 뭘까. 대우일렉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가전업체이기 때문이다.
대우일렉은 지난 1999년 워크아웃 이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연간 400억~5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 2조원, 영업이익 700

억원의 목표를 세웠다. 동유럽과 중동·중남미 등 해외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예상 매각금액인 3500억원보다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다.
대우일렉 인수전은 최근 동부그룹이 가세하면서 뜨거워졌다.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인수가 기존 사업 부문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 계열사 중 동부하이텍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동부제철은 병고와 세탁기에 쓰이는 강판을 생산한다. 대우일렉을 인수할 경우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봇과 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동부그룹은 내다보고 있다.
대우일렉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 서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도 분주해졌

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공장 준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3가지 선정조건을 캠프와 우리은행에 보냈다.
광주시는 공문을 통해 대우일렉의 새 주인 조건으로 ▲광주공장 준치·확대 ▲근로자 전원 고용 승계 ▲사모펀드의 경우 대주주가 50% 이상 자기자본 투자 등을 제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서한문을 보내 안정적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적격 대상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대우일렉은 1985년 광주에 설립돼 지역 가전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기업"이라며 "160여 지역 협력사와 지역 가전산업의 성장을 위해 광주공장을 확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너지 효율 30%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 개발

(주)세기...정부지원 농기계예 선정



장성에 본사를 둔 (주)세기가 기존 제품보다 에너지효율을 20~30% 높은 '친환경 공기열 히트펌프 시스템'(사진)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온도가 높은 낮에 공기에서 열을 얻어 축열조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주로 시설원예와 축산용으로 쓰이고 있다.
기존 히트펌프에 적용되던 단일냉매사이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원냉매사이클을 채택, 혹한기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또 기존 히트펌프 대비 에너지 효율을 20~30% 이상 끌어올렸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시험 의뢰해 영하 15도에서 냉동기 효율 성능계수(COP) 2.3 이상 취득했다.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로 선정됐다.
히트펌프는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만드는 획기적인 시스템기기로 각광받고 있다. 문의 061-393-5556.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상반기 확정 부가세 25일까지 신고·납부

광주, 전남북 개인·법인 50만 6000명 대상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3만 명, 법인 59만 명 등 562만 명이다. 이중 광주와 전남·북 '2012년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개인 45만 2000명, 법인 5만 4000명 등 50만 6000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기 신고대상자 49만 5000명(개인 44만 3000명, 법인 5만 2000명)보다 2.2%(법인 3.8%, 개인 2% 증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은 4~6월의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가품이나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영향을 받은 경영여기업과 모범납세자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8월9일)보다 빠른 7월 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시 업종별 맞춤형 신고화면을 개발해 전자신고 경험이 없어도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시 쟁거야 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산후조리원영역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진료료영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변경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 변경(3.7%→4.0%)도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원투명성이 낮은 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와 현금결제 유도로 매출을 누락한 현금수입업종 등의 신고내역을 검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하는 등 엄정 대응을 방침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과잉정비편 3배 보상 현대차 AS 대폭 강화

현대자동차는 차량을 필요 이상으로 정비했을 경우 과청구 금액의 최대 300%를 보상해주는 '과잉 정비 예방 프로그램(Overcharge Assurance Program)'을 도입하는 등 애프터서비스(AS)를 강화한다.
현대차는 16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부서비스센터에서 '고객 중심 프리미엄 서비스' 설명회를 열어 새로운 판매·애프터서비스 방침을 소개했다.
AS 부문에서는 '과잉 정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원격 정비 지원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과잉 정비 예방은 현대차 정비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에서 정비를 받고 난 고객이 과잉 정비가 의심될 때 상담센터로 찾으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단이 조사, 판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클린디젤 차량 부품 전시회
광주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은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광주테크노파크 시립생산동에서 '클린디젤 선진차량 분해부품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 전시회는 독일 폴크스벤이 제작한 클린디젤 차량 '골프 1.6 TDI'를 분해해 얻은 50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 끌어내나 오늘부터 집중교섭

금호타이어 노사가 17일부터 부분 파업 해결을 위한 집중 교섭을 벌인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16일 제18차 본교섭(대표교섭 9차)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파국을 막기 위해 17일부터 오전 실무회의, 오후 본교섭을 잇달아 여는

방식의 집중 교섭을 날마다 벌이기로 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이끌어 낼 지 주목된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급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

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급 200% 반납 등) 준수, 쟁의행위 철폐 조건으로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고수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셋값 40개월째 상승...역대 최장 기록

지난해 4%대 물가의 주범이던 전셋가격이 지난달까지 한 달도 거르지 않고 40개월째 올라 최장 상승 기록을 세웠다.
이 기간 아파트 전세금은 40% 가까이 치솟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5배나 됐다. 다행히 지금은 상승세가 확 꺾여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16일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로 2009년 3월 오르기 시작한 지난달까지 매달 상승 전월보다 적게는 0.1%에서 많게는

1.7%까지 올랐다.
이 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최장기간 상승 흐름이다.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오름세 직전인 2009년 2월 83.3에서 지난달 106.8로 뛰었다. 이 기간 상승률은 28.1%나 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4%였다.
2억원 짜리 전셋집이 3년 남짓한 사이에 2억6천만원으로 오름 셈이다. 특히 2010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1년가량 오름세가 가팔랐고 작년 3월에는 전월보다 1.7% 올라 절정을 이뤘다.
/연남뉴스

▲ 코스피지수	1,817.79 (+4.90)
▼ 코스닥지수	483.50 (-0.82)
▲ 금리 (국고채 3년)	2.95%
▼ 원·달러 환율	1,147.00원 (-3.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비세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적임, 원만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다시공비 적정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열매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된다.
5. 장복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일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리터로 다시 틀어서 물바람이 일할때다.

※ 상기 특허, 등록 및 기타 도용시 개발비용이 100배 곱해서 청구됩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시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뎌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종기 없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리터로 새로 옮겼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바람이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극 -

방수를 한 것이 벗겨지지 못했을 때 고민중에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중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구멍이라 사물을 뒀는데 역시 슬라브 지붕에는 없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말리고 돌아오면 첫째, 신선하니 시원하고 선종기 안들어오고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많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일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송준호-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

광주에서 강원도 가는 빠르고 편안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양양공항까지 1시간 20분만에 도착!
양양에서 강릉, 속초까지 차량으로 30분!

광주공항에서 강원도 양양공항으로 주 3회 왕복운항 합니다.

BEECHCRAFT 1900D

항공사: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KOREA EXPRESS AIR (최초 에어택시운영, 첫운항 후 무조건 안전운항)

구분	운항요일	출발시간	소요시간
양양 → 김해	목: 왕복 1회	양양: 10시 30분 김해: 18시	
	금: 왕복 2회	양양: 07시 50분/17시 10분 김해: 09시 30분/19시	1시간 10분
	토, 일: 왕복 2회	양양: 09시/17시 10분 김해: 10시 50분/19시	
양양 → 광주	금, 토, 일: 왕복 1회	양양: 13시 광주: 15시 10분	1시간 20분
	양양 → 김포	목요일: 김포발 월요일: 양양발	김포: 09시 양양: 09시

※ 운항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취항 이벤트
군장병 20% 할인

문의처: 예약전화: 1661-2682, www.keair.co.kr · 공항안내: www.airport.co.kr/dcc/yyangyang